

[금융 AI/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작성일시: 2026년 02월 10일 07:06 (KST)

1. 정부/금융당국 정책 동향

- 금감원, AX 및 디지털화에 따른 IT 보안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의 AI 전환(AX) 및 디지털화 가속에 따른 해킹 사고 등 감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심의 IT 및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강화하고, IT 보안 감독 전환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및 불법사금융 특사경 신설을 언급하며 감독 역량 강화를 시사했다. (뉴스1, 데일리안)
- AI 신사업 'AI 워싱' 우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2024년 테마 신사업(AI, 로봇 등)을 추가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60.8%가 실제 사업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AI 워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블로터)
- AI 인프라 구축 및 보안 기업 동향:** 현대건설은 AI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혁신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접목한 차세대 데이터센터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안 기업 시큐브는 2025년 실적 반등을 기록하며 보안 업계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더뷰어스, 더벨)

2. 금융보안 동향

- 미래 보안 위협 대비 필요성:** 김승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 및 인터넷 뱅킹 보안 시스템에 사용되는 수학적 보안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TN)
- 생체인증 및 망분리 솔루션 확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PASS 기반 안면인식 보안인증이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포통장 방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본인인증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휴네시온의 CDS(Cross Domain Solution)가 망연계 인프라 유지와 보안 등급별 전송 기준 세분화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보안 강화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IT조선)
- 경제범죄 지속 증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 및 가담 실태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위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드, 노컷뉴스)

3. 4대 금융지주/시중은행 AI/AX 동향

- KB금융/KB국민은행:** KB금융은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내 첨단전략산업심사 Unit 및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AI/AX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앙뉴스)
- 신한금융/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은 남양주시에 'AI 인피니티센터'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
- 하나금융/하나은행:** 하나증권은 AI,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AP뉴스)
- 우리금융/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은 2025년 역대 최대 주주환원을 달성했으며, AI를 그룹 전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 NH농협금융/NH농협은행:** 관련 뉴스 없음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카카오톡 AI 서비스에 혜택정보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며,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와 AI 협업을 논의 중이다. (더벨)
- 지방은행 (BNK금융/부산은행/경남은행, DGB금융/대구은행, JB금융/광주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 BNK부산은행은 올해 AX·DX(AI/디지털 전환)를 적극 추진하여 비용 절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타임즈)

4. 증권/카드/보험 AI/AX 동향

- **LLM 금융자문 활용 신중론:** MIT 교수는 챗GPT 등 LLM(거대언어모델)의 금융 자문 활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금융 윤리 관련 법·규정·판례 학습을 통한 모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BN)
- **하나증권, 디지털 플랫폼 활용:** 하나증권은 전통 IB 부문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하여 비상장 세컨더리 중개 등 벤처 생태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벨)
-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출시:**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네이트)

5. 핀테크/빅테크 동향

- **카카오페이, AI 전략 본격화:**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카카오톡 AI 서비스에 혜택정보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며,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뱅크와의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AI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벨)
- **네이버, AI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예고:** 네이버는 쇼핑을 시작으로 식당, 플레이스, 여행, 금융 등 에이전트를 연내 순차 출시하고, 검색에서 생성형 AI를 대폭 반영한 AI 탭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더벨)

6. 주요 키워드 및 인사이트

- **주요 키워드:** AI 전환(AX), 금융보안, 데이터센터, LLM(거대언어모델), AI 워싱, 생산적 금융, 안면인식 보안인증, 양자 컴퓨터 보안 위협, 경제범죄(보이스피싱).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금융권 전반의 AI/AX 가속화:** 4대 금융지주 및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AI/AX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투자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AI 인프라(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AI 활용의 윤리적/규제적 도전:** LLM의 금융 자문 활용에 대한 신중론과 금감원의 'AI 워싱' 우려 표명은 AI 기술 도입 시 윤리적 문제, 규제 준수,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IT 보안 감독 강화 기조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과 대응:** 양자 컴퓨터와 같은 미래 기술이 기존 보안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며, 현재는 안면인식 보안인증, CDS 등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해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기술적/제도적 대응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AI를 통한 생산적 금융 실현:** KB금융, 우리금융 등은 AI를 활용하여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생산적 금융' 실현에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